



경기동향(7월2주) - 경제전망 상향에 대한 평가

Weekly Short Comment - 한국은행 경제전망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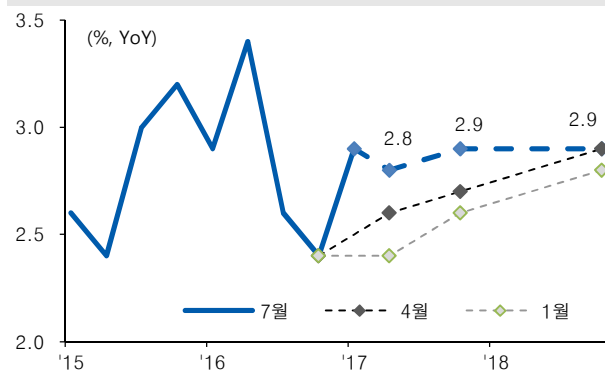
한국은행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연 4회 발표하고 있다. 그 중 7월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금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 성장 전망에서 +2.8% 성장으로 전망수준을 변경하였다.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은에서 밝히고 있는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선 하방리스크로 언급되는 것은 사드관련 무역제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북한 관련 리스크 등을 언급하는데, 이상과 같은 하방요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상당부분 실물경기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상방리스크로 제시하는 것은 추경 등 신정부의 경제대책, IT 업황 강화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추경은 아직 우리 실물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 하방리스크의 실현에 따른 우려보다는 상방리스크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향이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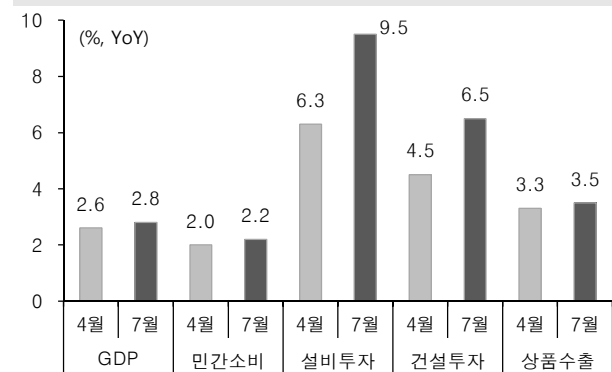
실제로 한은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언급을 전망에 명기하고 있다. 필자의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일차리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약 0.2~0.3%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3.0%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세부항목별 전망치 수정내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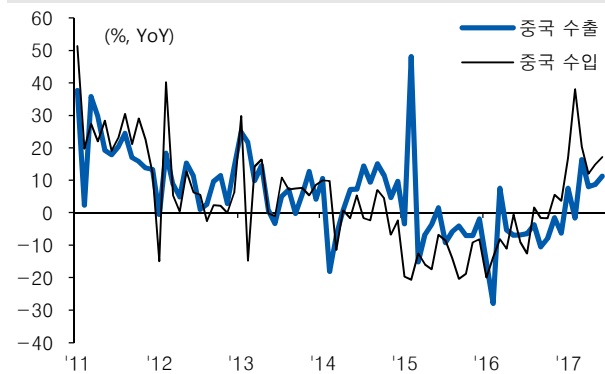
경제지표 다시보기(7/10~7/14) – 중국 수출, 전망치 상회

중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예상치(+8.9%)를 상회하였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며, 3월(+16.4%) 이후 증가폭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국가별로는 대 브라질 +55.5%, 남아공 +25.1%, 인도 +22.6%, 베트남 +13.3% 등 신흥국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었는데, 신흥국의 물가 안정화와 함께 소비경기 개선 조짐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흥국 수입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지표 미리보기(7/17~7/21) –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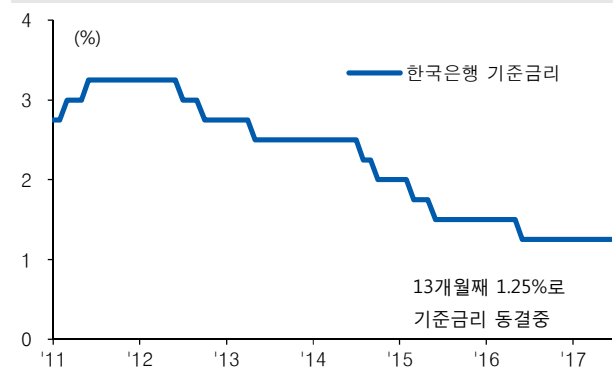
다음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있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거의 소멸되었으며, 1분기에 +6.9%의 성장률을 달성한 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에서의 예상은 +6.8%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실물지표인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는 만큼 급격한 성장 둔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4개월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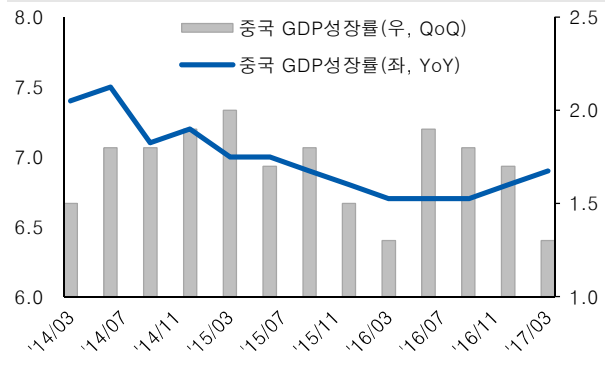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3개월째 동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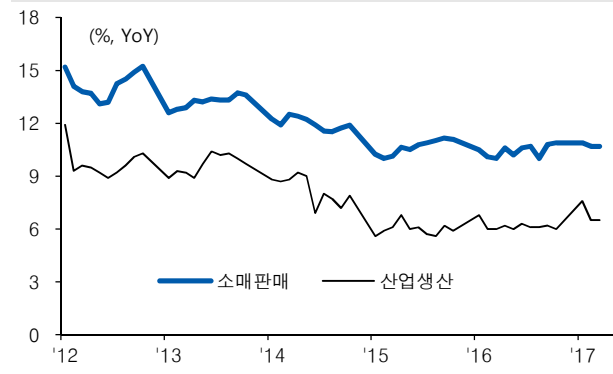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2분기 GDP 발표예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주요 실물경제지표 확인 필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